

'강원 표심' 3대 현안 해결에 달렸다

도 정치권이 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도 발전을 위한 법 제정과 현안 해결, 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다.

12·19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로 강원도 백년지대계와 미래를 결정짓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회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대선후보 및 대선주자들이 '강원도를 남북경협과 동북아경제시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해 도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직전 끝나 여야 대선후보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강원표심의 향배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양양 오색로프웨이 등 3대 현안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

도 정치권이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대정부 질문(6~11일), 국정감사(10월4~22일)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춘천

오늘 첫 정기국회 시작 ... 대선 판세에 막대한 영향 도 정치권 대정부질문·국감 통해 정부 압박 계획 국비 4조원 이상 확보 초당적 협력·상생의지 절실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올해 기본 설계비 50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이 불용처리돼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이달 중 지정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재지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도와 도 정치권의 공통된 전망이다.

한강수계기금 공정배분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 구 합태탄광 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 남북경협을 위한 실질적인 법기반인 통일경제관광특구법, 동해안 주민들을 위한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 관련 지원법 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설대책 국비지원 법제화 등 도 관련 핵심 법안 해결도 중요하다. 법안

이 통과되면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최초로 4조원대 예산시대를 열었던 도가 올해 목표했던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살림살이를 늘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문제는 도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빨간 불이 켜져 이번 국회가 더욱 중요하다.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 구간) 내년 예산은 1,347억원만 배정돼 실질 소요액 3,000억원보다 적고, 동해고속도로 단절구간 역시 고작 817억원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국도 38호선(제천-동해 간

확·포장), 국도 35호선(태백-강릉 확·포장)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신축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20억여원도 현재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에서의 예산 확보 노력 및 도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맹활약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원인 권성동(강릉) 의원이 예산결산의 관문이라 불리는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 정가에서는 도와 도 정치권이 여야로 갈려 대립, 갈등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급히 도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화해와 협력, 상생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12·19 대선 직전의 정기국회에서 도가 실리를 취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도와 도 정치권의 서먹한 관계를 개선해 법안, 현안, 예산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민왕기자 wanki@

춘천~속초철도특위 구성 핫이슈

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최 ... 조기착공 관철에 최선
상경시위 등 3대 현안 해결 위한 대책도 집중 논의

도의회가 3일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3대 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우선 의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상경시위 등을 포함한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압박방식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위 구성결의안'도 심의한다. 새누리

당 김성근(속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여야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각 상임위별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말까지로 정했다. 특위는 사업의 조기착공을 관철하는 것은 물론 철도노선의 변경 없이 당초 노선(청량리-춘천~속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노선의 일부 구간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 조정 이후 처음 맞는 회기다.

도의원들은 비회기 기간인 지난 8월 한 달간 소속 상임위로 연찬회를 열고 상임위 업무과약은 물론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후반기 활동을 준비해왔다.

김성근 의원은 "정부는 경제성이 낮을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50억원을 불용처리한다는 입장과 함께 당초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 미래비전 차원에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조기 관철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건설업 체감경기 2년來 최저

건설업계의 체감경기가 최근 2년 새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에 비해 6.7포인트 하락한 59.0을 기록했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지난달 CBSI는 2010년 8월(5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7월에는 통계적 반등의 영향으로 CBSI가 4개월 만에 소폭 올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 지수가 80.0으로 전월에 비해 12.9포인트나 급락했으며 중견업체 지수도 46.2를 기록해 2009년 2월(40.6) 이후 3년 6개월만에 최저치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49.1로 전월보다 4.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선을 밑돌았다. 하위윤기자

◇정동기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3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 소재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에서 '2012년



도회 대표회원 연수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

| 도의회 하반기 현안 점검 |

평창올림픽 시설·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 방안 모색

④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하반기에 동아시아 최조로 시도되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하반기 의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들의 올림픽 관련 공사 참여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시행령 통과에 따라 각종 진입도로 착공과 경기 시설 건설 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령에 지역 우대기업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설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스킴십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계획이다.

또 전반기 조례 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

가 가능해짐에 따라 테크노파크, 산업경제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11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도내 이전 기업들에 대한 관리 부실로 수백억의 보조금이 낭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라 불거진 만큼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이전 기업 관리의 경우 사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전위는 각 기업에 대한 MOU를 체결할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정재웅 위원장은 “도내 각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내 기업이전과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순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경제진흥 확대회의 중기·농어업 대책 보고

강원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하반기 강원경제진흥 확대회의를 3일 오전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문순 지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확대회의는 경제관련 기관·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이철수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이 최근 경제동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도청 경제분야 소관 국장들이 일자리 서민경제 중소기업 농어업 관광 건설부문 활성화 대책 보고와 경제계 대표들의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안은복